

 국토교통부	<h1>보도자료</h1>		
	배포일시	2019. 6. 8(금) 총 2매(본문2)	
담당부서	공공주택추진단	담당자	·단장 김규철, 팀장 김승범, 사무관 김수현 ·☎ (044) 201-4441
보도일시		2019년 6월 10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9(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100여명의 전문가들과 신규택지 개발구상 수립

교통/일자리/도시·건축/환경/원주민재정착 등 분과별 연구진행(계획) 지구별 UCP를 통해 개발구상 구체화, 신도시 포럼 6월말 발족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0만호 주택 공급계획(1차 '18.9, 2차 '18.12, 3차 '19.5)에서 발표한 남양주 왕숙, 고양창릉 등 대규모 택지*의 개발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통, 일자리, 도시·건축 등 1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100만㎡ 이상인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인천계양, 과천과천 등

□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자족기능 강화방안 등 지구별로 분야별 특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택지 반경 20km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로 인한 교통 유발량과 교통대책으로 인한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필요시 교통대책을 보완 또는 추가할 계획이다.

- 교통 사업별 완공 시기 등 세부 추진 일정 등이 담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2차 발표지구(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과천) : 연내
 3차 발표지구(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 '20년 상반기

○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용역*도 착수하였다.

* 용역착수 5.27(과업기간 '19.5~'20.11), (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참여

- 신규 대규모 택지를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 대비 2배 수준*의 자족용지를 확보한 만큼 산업 수요·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지구별 산업 특화방안과 앵커시설을 포함한 기업유치방안이 제시될 계획이다.

*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 5곳의 자족용지 총 면적은 553만㎡(제1판교테크노의 11배 수준)

- 이외에도 폭염 및 미세먼지 대응, 보육·교육기능 강화, 에너지 저감형 친환경 도시조성 등의 특화방안도 수립된다.

□ 분야별 특화계획과 별도로 UCP*(Urban Concept Planner)와 신도시 포럼을 통해서도 지구별 개발구상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 UCP가 지구지정 前단계에서부터 개발구상안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그동안 지적됐던 개발구상안과 지구계획 간 정합성·연계성 부족 문제를 보완

- 도시·교통·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구별 UCP가 지자체, 사업 시행자와 회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개발 컨셉과 방향을 제시하고,

* 현재까지 총 30여회 개최되었으며, 향후 지구지정까지 지구별 월 1회 이상 개최 계획

- 6월 말 개최될 예정인 신도시 포럼은 6개 분과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의 싱크탱크로서 민간의 아이디어를 3기 신도시 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①도시·건축, ②교통, ③스마트시티, ④환경, ⑤일자리, ⑥교육·문화

□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공모를 통해 3D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 분야에서 전문가와 특화계획을 지속 수립하고, UCP·신도시포럼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내년부터 지구계획으로 확정할 계획”이라며,

- “모든 계획수립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함으로써 신규 택지 조성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공공주택추진단 김수현 사무관(☎044-201-44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